

부활 생명

2020 년 3 월 29 일

요한복음 11 장 1-45 절

들어가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소식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더해 줍니다. 불안하게도 합니다. 카톡으로 뉴욕 총영사관에서 온 소식을 서너 차례 전했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에서 이메일로 이 소식을 보내주고, 한인 동포들과 나누라고 부탁을 해 와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몰라서, 더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생명까지 잃은 사람은 몇명인지, 알고 있으면, 맘이 좀 편해 지고, 더욱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보낸 카톡 스크린을 보면서 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커네티컷에서 총 몇 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사는 웨어필드 카운티에서 제일 많이

죽었고. 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소식이, 겁나게 하는 소식이요, 우울한 소식이요, 불안을 더욱 조장하는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 듣는 요즘 소식은, 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놀리게 소식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심하고, 뉴스를 안 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1.1

그런데, 오늘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참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것 이상입니다. 정말로 신나고 놀랍고,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들으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나자로 살리셨습니다. 믿겨지지 않지요?

오늘, 3 월 29 일, 교회력을 따라 읽은 요한 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 받는 소식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나자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소식이 전해 졌을 겁니다. “죽은자가
걸어다닌다” Dead Man Walking!”

1.2

그런데, 정말로, 큰 소식,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더
큰 소식이고 더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옛날 옛날에, 중동 지방 베다니에
일어난 부활 사건 만이 아니라는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살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귀를 활짝 여리게 하는, 눈을 활짝 뜨게 하는 진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와우.. 가슴이 벌렁 벌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앞으로 부활이 될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지금, 여기서 왕성하게 태어나고 풍족히 누리는 부활 생명,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여기서 사는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2 천여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하신 사건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걸음 더 나가서, 죽으신 후, 3 일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참 목사가, 철저히 성경을 읽고, 목회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한 교우가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이, 예수님께서서는 장례 예배 인도하셨다는 기록은 없고, 부활시킨 기록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고, 부활 축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생명 종교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내십니다.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살려 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려 내십니다. 어떤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초조와 불안? 욕심? 판단과 정죄? 외로움? 증오와 차별? 좌절과 포기? 무관심? 비교의식 과 열등감? 교만과 오만? 우리를空空 묶어놓는 죽음의 동아줄을 끊으시고 살려 내십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며는,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복받치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려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두운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이 없는 불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짓눌리는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들리십니까?

주님의 우렁찬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건삼아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 나오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건삼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음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두려움의 무덤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한다. 건사마 나오너라. 나의 생명을 받아라 새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면, 생명이신 주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부활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중의 중요한 것 하나가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왜 이 날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3 일 후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잊지 않고 함께 감사 찬양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맞아요. 주일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날이 아닙니다. 매일이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 생명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십니다.

하루 하루 새생명 받고, 하루 하루 부활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16-18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하였습니다.

속 사람이 새로와집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부활시키고 생명 주실 때에,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 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도다.” 고후 5 장 17 절 담대히 기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 부활 생명이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일신 우 일신..
“일 부활 우 일 부활” 부활 생명의 삶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1

말씀을 계속 보며는 또 하나의 귀한 소식을 듣게됩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느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саро가 나옵니다.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있는 채로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영어로, “The dead man came out, his hands and feet bound with strips of cloth, and his face wrapped in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자유롭게 하라”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라”

예루살렘 신문 헤드라인 밑에, “죽은 자를 사람들이 풀어, 걸어다닐 수 있게 해 주었다” 라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왜? 왜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다시 살게 한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지 않으시고,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 생명 사역에, 우리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부활 생명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웃으로, 상호 상생하며 살아야 하는 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부활의 삶을 시작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중요한 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리즈 새비지 (90 세).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브릿지포트 병원에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때문에, 심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화 심방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분을 생각하면, 혼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면서,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신 분이신데, 제대로 목회자로서 섬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책망스러웠습니다.

지난 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이, “목사님, 전화 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교우들께 안부 인사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몸과 맘을 꽉 묶고 있던 자책감에서 풀어나는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이 목사님이 인디애나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8년간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하시다가, 따님 댁으로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째가 되어 갑니다. 병원과 양로원을 왕래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 분이 전화를 이른 아침에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전화입니다. 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곤 했지요. 그것도 이른 아침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힘들어하는 때에, 제가 진작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장거리 전화를 받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분과 대화하고, 전화를 끊을 때 즈음에, 그 분의 말씀이, “이번 주일도, 말씀 선포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실 때에도, 자주 하신 말씀이십니다. “Preach well, Pastor Cho” 이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꼭,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날 밤새도록, 세상이 흥흥하고 어려운 때에, 설교자로서, 제대로 말씀 사역을 못 감당하면 어떻하나, 불안해 하고, 소침해 하고 있던 저였는데, 제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얼굴을 가리고, 제 마음을 꽁꽁 묶었던 수건들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가, 서로가 서로에 하는 격려의 말들이 친절한 말들이, 그리고 환한 미소가 부활 생명 사역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회 영어 회중이나 믿음 속 한어 회중이나, 서로 반겨주고, 특별히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두 손 벌려 마음 벌려 활짝 환영해 주는 교회로 동네에 알려져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진정 신앙의 여정에 친구와 동역자가 되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신실하게, 기도 가운데 서로 기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 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하는” (로마서
12:15)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과 맘과 영혼을
꽂꽂 묶고 있는 밧줄들을 서로 풀어내어 주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세상 여정 마칠 때까지, 부활 생명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